

# 《說苑》〈敍錄〉을 통해 본 《說苑》의 성격 고찰

權娥麟\*

---

## ◁ 목 차 ▷

---

- I. 序言
  - II. 《說苑》〈敍錄〉의 해석과 쟁점
  - III. 《說苑》의 저본 유무와 원형 자료 수록 방식
  - IV. 《說苑》의 소설적 요소와 문학적 가능성
  - V. 結語
- 

## I. 序言

《說苑》은 西漢의 劉向이 황실과 민간 장서들 가운데 관련 자료들을 집록한 다음 선별하고 정리해서 엮은 잡다한 이야기 모음집이다. 西漢 초기부터 秦의 焚書坑儒 등으로 장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하여 서적을 현상하게 하고, 각 지방에 사자를 파견하여 남아 있는 서적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책을 수집하고 학자들에게 이를 정리하도록 장려했다. 유향은 조정에 모아들인 경전, 제자서, 시부 등의 교열을 책임지는 일을 맡았는데 주로 異本을 모아 중복을 없애고, 순서를 바로 하여 목차를 정하고, 또 誤·脫字를 바르게 잡아 正本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sup>1)</sup>

《說苑》에 수록된 이야기는 先秦으로부터 西漢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종의 서적에 673개의 異文<sup>2)</sup>이 존재할 정도로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또한 《戰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成帝 河平 3년(B.C26년)에 유향을 光祿大夫에 임명하고 천하에서 遺書를 구하여 궁정에 소장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교정을 유향이 主宰하도록 하였다. 유향은 경전, 제자, 시부를 맡았고, 任宏은 兵書, 尹咸은 數術, 李柱國은 方技를 나누어 맡았다.

2) 각각의 異文 양상은 楊莊의 《說苑及其相關文獻異文的比較研究》(四川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8쪽)를 참고할 수 있다.

國策》, 《列女傳》, 《新序》 등을 완성하고 가장 만년에 《說苑》을 완성한 만큼<sup>3)</sup> 그의 사상이나 편찬 방식, 교감 경험 등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었다. 즉 《說苑》에는 유향의 사상이나 관점이 드러날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고사의 수용과 변천 과정 또한 나타나므로 西漢의 저작 환경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說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sup>4)</sup>, 저작의 성격 또한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임동석은 〈敍錄〉의 내용에 근거하여 《說苑》은 이미 있던 기록을 새로이 纂輯한 것이라 하였고<sup>5)</sup>, 《중국소설사의 이해》에서도 《說苑》은 編纂한 것이고, 선진부터 漢代까지의 역사고사를 집록하고 의론을 덧붙였다고<sup>6)</sup> 기술하여 《說苑》을 편찬한 유향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재서는 편찬이라는 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도 〈敍錄〉의 내용을 볼 때 《說苑雜事》라는 저본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sup>7)</sup>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의 《說苑》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역시나 그 성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sup>8)</sup> 어떤 학자는 《說苑》에 허구적 요소가 많

3) 대체로 成帝 鴻嘉 4년인 기원전 17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新序》를 완성한 14년 후 《說苑》을 완성했다고 한다.

4) 국내에서는 《說苑》이 지닌 문학, 사상적 가치에 비해 전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문학사나 산문·사상사에서 대략의 특징을 소개하거나 소설이나 필기의 기원으로 짧막하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역주본으로는 임동석의 《說苑譯註》(동문선, 1997)가 있다. 문학·사상 관련 연구 성과로는 석사학위논문 1편(이한나 《유향의 說苑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과 학술지 논문 4편(노인숙 〈유향 說苑 재이사상 연구〉:《국제중국학연구》2011, 민관동 〈조선 출판본 新序와 說苑 연구〉:《중국어문논역 총간》2011, 이장휘 〈說苑 문론 역주〉:《중국학》2012, 이장휘 〈說苑 문론 역주Ⅱ〉:《중국학》2013)이 있었다. 석사학위논문에서 《說苑》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상과 사상적 특징을 기준으로 《說苑》의 내용을 소개하고, 묘사기법 등 《說苑》의 형식적인 특징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說苑》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5) 임동석 《說苑譯註》, 동문선, 1997, 927쪽.

6) 중국소설연구회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1994, 36-37쪽.

7) 정재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55쪽.

8) 중국에서 《說苑》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문 연구 서적이 등장하면서 점차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크게 형식적인 특징 파악, 판본 및 문헌학적 가치 규명, 정치·사상적 내용 분석, 문학적 특징 및 소설과의 관계 도출, 선진양한 저작과의 비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說苑》에 대한 전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자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아 소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철저하게 古本에 근거하여 수록했을 뿐 增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sup>9)</sup>

하나의 저작을 두고 이처럼 다양한 異見이 나오는 것은 각각의 주장에 언급된 〈敘錄〉과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유향은 수집한 책을 교감 정리한 후 마지막 막으로 완성한 正本을 흰 비단에 써서 황제에게 진상했는데, 진상하는 책마다 〈敘錄〉 한편씩을 지었다. 이는 각 책을 교정하고 정리한 일에 대한 상세한 보고이자,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황제가 책을 읽기 전에 먼저 〈敘錄〉을 읽고 그 책의 골자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각 학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敘錄〉을 통해 《說苑》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說苑》에 첨부된 〈敘錄〉 자체가 완성하지 않아 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저술 환경이나 유향의 저술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작용하여 상기와 같은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다. 이에 《說苑》〈敘錄〉을 두고 나뉘는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초보적인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說苑》의 편명, 구성, 체제, 저술동기, 원형 자료에 대한 수정 여부, 소설과의 관계 등 《說苑》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說苑》〈敘錄〉의 내용과 생점

먼저 현재 남아있는 《說苑》〈敘錄〉의 전문을 살펴보자. '敘錄'은 '書錄', '序錄', '序奏'라고도 불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향은 황실의 저서를 교감한 후 書名과 編目, 校定の 경위, 저자의 事蹟·사상, 도서의 내용·진위·비평 등을 종합한 일종의 요약서 혹은 해제인 〈敘錄〉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敘錄〉을 모아 《別錄》 10권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唐代에 산실되었다.<sup>10)</sup> 清代에 이르러 輯本을 통해 逸文이 정리되면서<sup>11)</sup> 《戰國策》〈敘錄〉, 《晏子》〈敘錄〉, 《孫卿》〈敘

9)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10) 姚振宗이 《七略·別錄佚文·敘》(鄧駿捷 校補《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上海古籍出版社, 2007, 4쪽)에서 《別錄》은 「당말 오대의 분란 중에 망실되었다(蓋亡於唐末五代之亂)」고 주장한 이후 이러한 설을 따르고 있다.

11) 嚴可均《全漢文》, 洪頤煊《經典集林》, 馬國翰《玉函山房輯佚書》, 王仁俊《玉函山房

錄), 《管子》〈敍錄〉, 《列子》〈敍錄〉은 완전한 형태로 수록되었으나 《說苑》의 〈敍錄〉은 일부가 전해졌다. 문구의 잔결로 그에 대한 해석은 역대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說苑》〈敍錄〉을 통해 《說苑》의 저본, 수록 대상, 편찬 원칙, 편찬 방법 등을 알 수 있어 《說苑》의 성격과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敍錄〉을 통해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바와 쟁론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장에서 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황실의 中書에 소장된 ‘說苑雜事’와 신이 소장한 책, 민간에서 수집한 책을 교감하였는데/ 비슷한 문장이 너무 많고, 장구가 번잡하며 전후가 일치 하지 않아 순서를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新序》와 중복되는 것을 빼고/ 그 나머지 천박하고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별도로 모아 《百家》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유형을 모은 후/ 하나하나 편목을 다르게 하는 한편/ ‘新事’를 더해/ 십만 자 이상의 20편, 784장을 ‘新苑’이라 하니 모두 참고할 만 합니다./ 신 유향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所校中書說苑雜事及臣向書·民間書, 誣校讎. 其事類衆多, 章句相溷, 或上下謬亂, 難分別次序. 除去與新序復重者, 其餘者淺薄不中義理, 別集以爲百家. 後令以類相從, 一一條別篇目, 更以造新事十萬言以上, 凡二十篇七百八十四章, 號曰新苑, 皆可觀. 臣向昧死.)<sup>12)</sup>

추측이나 추론은 제외하고 〈敍錄〉을 통해 알 수 있는 《說苑》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說苑》의 자료는 中書 ‘說苑雜事’, 유향의 장서, 민간서에서 취합했다. 中書는 황실의 장서관이다.
- ② 취사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新序》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義理에 합당한 것이다.

輯佚書續編, 張選青《受經堂叢書》, 姚振宗《師石山房叢書》, 陶浚宣《稷山館輯補書》, 顧觀光《武陵山人遺稿》, 章炳麟《七略別錄佚文征》 등에 《別錄》의 佚文이 수록되어 있다.

12) 向宗魯《說苑校證》, 中華書局, 1987, 1쪽. 중국과 한국에서 《說苑》〈敍錄〉은 원문만 소개되어 있다. 각 학자별로 표점이 다르나 向宗魯의 것이 가장 합당해보여 참고하였다.

- ③ 《說苑》과 《百家》는 義理에 의해 나누어졌다. 즉 義理에 합당한 것은 《說苑》에 수록되었고, 천박하여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은 《百家》로 편입되었다.
- ④ 각종 자료는 유향의 편집, 정리, 편목, 편차의 과정을 거쳤다. 비슷한 유형을 새로운 제목에 따라 편성하는(以類相從, 一一條別篇目) 방법이다. 따라서 《說苑》의 구조는 유향이 설계한 것이다.
- ⑤ 유향은 편집한 3종의 원형 자료에 '新事'를 더해 《說苑》을 완성했다.
- ⑥ 최초의 《說苑》은 10만자 이상 20편, 784장의 분량이다.
- ⑦ 유향 스스로 《說苑》을 부른 명칭은 '新苑'이다.
- ⑧ 《說苑》의 내용은 모두 漢 成帝에게 읽히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먼저 ①번 항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說苑雜事'가 무엇인가이다. 《說苑雜事》라는 책이 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황실에 수집된 다양한 자료의 총칭인지에 따라 《說苑》의 성격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②번 항목에서는 '復重'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新序》와 《說苑》에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향이 인식하는 중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新序》와 《說苑》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③번 항목을 통해서도 '百家'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漢書·藝文志》'小說家類'에 소개된 《百家》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儒家類에 편입된 《說苑》과 소설가류에 편입된 《百家》를 나누는 기준이 현대의 소설 관점과는 다른 '義理'에 있으므로 《說苑》을 통해 漢代人이 인식하는 소설의 모습을 반추해볼 수 있다. ④번 항목에서는 유향이 《說苑》의 구성을 설계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以類相從'의 방법으로 이야기들을 재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이때 단순히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각 편장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수정한 것인지 〈敘錄〉의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⑤번 항목에서는 3종의 자료에 다시 '造新事'하였다고 하였는데 '新事'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유향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여 첨가했다는 의미인지 당시의 관습에 따라 당대[漢代]의 일을 '新事'라 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⑥번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통용되는 《說苑》과 망실된 최초 《說苑》의 편목은 20개로 동일하다. 하지만 장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거나 혹은 이야기들이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⑦번 항목에서는 '新苑'의 의미는 무엇이며 《說苑》으로 이

름이 바뀌었다면 ‘說苑雜事’라는 저본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이름을 바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⑧번 항목을 통해서 《說苑》의 찬술 목적을 알 수 있다. 책을 통해 간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찬술 목적이 《說苑》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說苑》(敍錄)의 해석을 두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저본을 통한 교감의 결과인지, 유향의 사상이나 관점이 반영된 찬집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說苑》에 수록된 원형 자료들의 유형과 《新序》와의 중복 문제이다. 수록된 이야기들은 원형 자료의 가공을 거친 것인지, 만일 가공했다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처리한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각각의 명칭과 단어의 의미는 당시의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說苑》의 소설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說苑》이 지닌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것이다.

### Ⅲ. 《說苑》의 저본 유무와 원형 자료 수록 방식

#### 1. ‘說苑雜事’라는 저본의 유무, 최초의 書名 ‘新苑’

상술하였듯이 ‘說苑雜事’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대로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說苑雜事’가 《韓非子》나 《呂氏春秋》와 같이 한 권의 완성된 책이라면 또한 《說苑》이 그것을 바탕으로 썼었다면 그것을 유향의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敍錄》에서 ‘說苑雜事’가 《說苑》의 자료 중 하나라 하였는데, 책이 아니라면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이처럼 ‘說苑雜事’가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서문의 기술에서 《說苑》의 저작 성격을 놓고 異見이 생겼다. 즉 ‘說苑雜事’라는 저본의 유무가 《說苑》의 성격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說苑雜事’와 유향이 최초로 명명한 ‘新苑’, 《漢書》 이후 확정된 書名인 ‘說苑’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함께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說苑雜事'라는 저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漢書·藝文志》의 「유향이 67편을 썼다.(劉向所序六十七篇)」<sup>13)</sup>, 曾鞏의 序에 「유향이 《說苑》 20편을 썼다.(劉向所序說苑二十篇.)」<sup>14)</sup>라는 《說苑》 이후의 類書와 각종 서문의 기술을 근거로 저본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려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편집에 의한 결과로 보는 학자들은 序의 의미를 단순히 順次를 정한 것이라 해석하고 이러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說苑雜事》라는 저본의 존재로부터 찾았다. 즉 魯迅이 《中國小說史》에서 《說苑雜事》라는 저본이 있었다고 간략히 소개한 후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따랐다. 羅根澤은 노신의 말을 언급하면서 유향의 시대에 이미 《說苑雜事》라는 책이 있었고, 유향이 그 책을 얻어 교감한 것이니 《說苑》은 유향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sup>15)</sup>, 《說苑》을 역주한 向宗魯 또한 유향 이전에 이미 《說苑雜事》라는 책이 존재하였고 유향의 교감을 거친 후 《說苑新書》라 불렀다<sup>16)</sup>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說苑》은 《說苑雜事》라는 저본을 編次의 방법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徐復觀이다. '說苑雜事'를 하나의 서책이 아닌 황실에 소장된 한 무더기의 다양한 자료라는 과감한 주장을 내세웠다.<sup>17)</sup> 체계가 없이 여러 자료가 뒤섞인 것이므로 기타 제자백가서와 같이 한권으로 엮을 수 없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민간서와 여러 자료를 더하였다고 보았다. 저본을 통해 새로운 체계의 책으로 찬술한다는 것은 당시의 저술 환경을 볼 때 힘들었기 때문이다.

13) 班固의 注에 「《新序》, 《說苑》, 《世說》, 《列女傳頌圖》也。」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3종류의 저서에 나타난 모든 편의 합이 65편인 것이다. 《隋書·經籍志》에는 '說苑二十卷', 《新·舊唐志》에는 '說苑三十卷', 으로 기록되어 편이 일치하지 않지만, 《宋史·藝文志》 이후의 모든 목록서에는 모두 '說苑二十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14) 陳杏珍, 晁繼周點校《曾鞏集》, 中華書局, 1984, 191쪽.

15) 顧頡剛, 羅根澤《古史辨》: 「劉向時已有成書, 已有定名, 故劉向得讀而校之, 其非作始劉向, 毫無疑義。」(第四冊, 上海古籍出版社, 1982), 228쪽.

16) 向宗魯《說苑校證》: 「子政之前, 已有其書, 子政校錄, 謂之說苑新書。」(中華書局, 1987), 1쪽.

17) 徐復觀《兩漢思想史》: 「說苑雜事僅指中秘所藏的一堆材料, 並非如其他諸子百家之勒爲一書, 所以又可加入自己及民間所藏的的這類材料。」(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40쪽.

첫 번째 의견에 따르면 《說苑》은 황실에서 소장한 책을 저본으로 삼은 뒤 유향이 문자를 교감하고 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두 번째 의견에 따르면 '序'를 현대적인 의미인 著述로 해석하고, 저본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說苑》을 편찬한 유향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漢書》에 기록된 '序'라는 글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漢書》에 나타난 '著'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 스스로 창작하는 의미<sup>18)</sup>, 자료를 편집하여 엮는다는 의미<sup>19)</sup>, 같은 작품 내에서 혼용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漢書·藝文志》나 각종 서문에 나타난 '序'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저본의 유무를 추론하거나 《說苑》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敍錄〉이 첨부된 다른 저작과의 비교, 기타 〈敍錄〉에 나타난 저술 방법 기술을 통해 저본의 유무와 성격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유향은 선진의 고서를 수집하여 자신이 직접 校勘한 후 책이 완성될 때마다 분류하고 大意를 기록하여 《別錄》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晏子》〈敍錄〉, 《孫卿》〈敍錄〉, 《管子》〈敍錄〉, 《列子》〈敍錄〉과 같이 《說苑》에도 저본이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출토문헌을 통해 고증하는 것이다. 1977년 安徽省 阜陽縣 汝陰侯<sup>20)</sup>의 墓에서 西漢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竹簡이 출토되었는데 1號 木牘의 47개 중 33개가 《說苑》에 보이고, 2號 木牘의 30개 중 18개가 《說苑》에 보이기 때문이다.<sup>21)</sup> 즉, 유향 이전에 《說苑雜事》라는 책이 존재하였고, 유향이 그 책을 저본으로 하되 다른 자료들을 더하여 《說苑》을 재편성한 것이다. 출토문헌을 토대로 보면 《說苑雜事》라는 책은 《晏子春秋》나 《淮南子》와 같은 한 사람의 주장이 일관적으로 수록된 체계를 지닌 것이 아니었고, 《戰國策》과 같은 역사서도 아니었다. 정해진 내용이나 주지가 없이 춘추전국시기 인물의 言行을 단

18) 《賈誼傳》: 「凡所著述五十八篇」, 《童仲舒傳》: 「及去位歸居, 終不問家產業, 以修學著書爲事」, 《淮南王傳》: 「招致賓客方術之士數千人, 作爲內書二十一篇」.

19) 《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贊》: 「桓寬推衍鹽鐵之議, 增廣條目, 極其滄難, 著數萬言」.

20) 會陰侯 夏侯灶로, 文帝 15년(B.C.165년)에 사망하였다.

21) 胡平生 〈阜陽雙漢簡與孔子家語〉: 《國學研究》 제7권,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참조.



순히 모아놓았다. 따라서 유향이 보기에 천박하여 ‘義理’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자를 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 자신이 정한 체계에 맞춰 새롭게 편성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說苑》의 서사 자료는 《說苑雜事》와 漢代의 ‘新事’, 혹은 왕실 소장 《說苑雜事》와 유향의 장서, 민간서로 정확히 대칭되므로 〈敘錄〉의 내용과도 일치하게 된다.

〈敘錄〉에서 유향 스스로 ‘新苑’이라 부른 書名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說苑雜事》라는 책이 존재하되 그 책을 교감하고 편집만 하였다면 그 명칭을 ‘新苑’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향이 《國語》를 새롭게 교정하고 편집하여 《新國語》라고 칭한 것처럼 ‘新苑’ 또한 ‘新說苑’에서 ‘新’자가 탈락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sup>22)</sup>, ‘說苑新書’의 약칭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sup>23)</sup> 이러한 의견은 《說苑雜事》라는 저본을 교정하고 편집했다는 의미에 기반을 둔다.

그렇지만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는 ‘新’자가 漢代의 書名에 자주 쓰이던 글자였다는 사실이다. 陸賈의 《新語》, 賈誼의 《新書》, 유향의 《新序》가 대표적이다. 유향은 《新語》를 참고하여 《新序》를 만들었고, 桓譚은 《新序》를 칭송하여 《新論》을 만들었다고 한다.<sup>24)</sup> 《新序》를 완성한 후 중복 편을 제거하고 《說苑》을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니 《說苑》 역시 본래 명칭은 ‘新苑’이었으며, 반고가 《劉向傳》을 지으며 ‘新苑’을 ‘說苑’으로 오기하거나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명명했을 가능성이 높다.<sup>25)</sup>

그렇다면 ‘新苑’의 ‘新’자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환답이 《新論》<sup>26)</sup>을 저

22) 姚振宗, 鄧駿捷 校補《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新苑》疑《新說苑》, 脫說字猶重編《國語》稱《新國語》。」(上海古籍出版社, 2007), 41쪽.

23) 向宗魯《說苑校證》: 「《新苑》云者, 《說苑新書》之簡稱也。」(中華書局, 1987), 1쪽.

24) 房玄齡《晉書·陸喜傳》: 「劉向省《新語》而作《新序》, 桓譚詠《新序》而作《新論》。」(中華書局, 1974), 1486쪽. 여기에서 ‘省’은 살펴보다, 생략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5) 《漢書》 이후로 《說苑》이라 표기되었다는 것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증된 바가 없다.

26) 《隋書·經籍志》에는 17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실되었다. 《弘明集》에 〈形神〉 1편이 있다. 촛불을 형신에 비유하여 정신은 형체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형체가 멀하면 정신도 없어져 생장과 사망은 자연 법칙임을 인식한 내용이다. 清代 嚴可均在《全後漢文》에서 輯本을 수록하였다.

술한 목적을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내가 《新論》을 지은 것은 고금의 사실을 서술하여 변별하고, 또 治世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니 어찌 춘추의 포폄의 뜻과 다르다 하겠는가? ..... 나 환담은 유향의 《新序》와 육가의 《新語》를 보고 《新論》을 지었다. 장주의 우언에서 요가 공자에게 물었다 말하고 있고, 《淮南子》에서는 공공이 황제의 자리를 다뒀 땅을 이은 끈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두가 거짓으로 지은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짧은 글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천간의 이치를 논함에 있어 성인만큼 잘 이는 이가 없었으니 장주 등이 비록 허황되고 괴탄하다고는 하나 좋은 점은 마땅히 취할 수 있으니 어찌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하겠는가! (余爲新論, 述辨古今, 亦欲興治也, 何異《春秋》褒貶邪! ..... 譚見劉向《新序》, 陸賈《新語》, 乃爲《新論》. 莊周寓言, 乃云「堯問孔子」; 《淮南子》云「共工爭帝, 地維絕」, 亦皆爲妄作. 故世人多云短書不可用. 然論天間, 莫明於聖人, 莊周等雖虛誕, 故當采其善, 何云盡棄邪!)<sup>27)</sup>

이를 살펴보면 환담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를 바로잡고, 그를 통해 바른 정치를 행하게 위해 《新論》을 지었으며 《春秋》의 필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당시의 사상가들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개괄하는 방법으로 《論語》나 《老子》와 같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春秋》와 같이 역사 인물들의 언행으로 표현해내었는데 사마천은 荀子, 孟子, 韓非子, 董仲舒 등이 모두 《春秋》의 대의를 계승했다고 하였다.<sup>28)</sup> 또한, 상대부 壺遂가 사마천에게 공자가 《春秋》를 지은 연유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환담이 말한 포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공자는 “나는 추상적인 말로 기재하려고 해보았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위정자가 행한 실재 치적을 놓고 포폄하는 것이 일을 훨씬 더 절실하고 명백히 하는 것이라

27) 朱謙之 校輯《新輯本桓譚新論》, 中華書局, 2009, 1쪽.

28) 《史記·十二諸侯年表序》: 「여불위는 진나라의 장양왕의 재상으로서 위로는 상고시대를 통찰하고 《춘추》를 정리하여 6국의 사적을 집성하였는데 편찬하여 《呂氏春秋》라고 하였다. 그리고 순자, 맹자, 공손고, 한비자 같은 자들은 각각 《춘추》의 뜻을 받아들여 저작하였으므로 이루 다 예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呂不韋者, 秦莊襄王相, 亦上觀尙古, 刪拾《春秋》, 集六國時事, 以爲八覽, 六論, 十二紀, 爲呂氏春秋. 及如荀卿, 孟子, 公孫固, 韓非之徒, 各往往摺摭春秋之文以著書, 不可勝記.)」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저 《춘추》는 위로는 삼왕의 도를 밝히고, 밑으로는 인간사의 기강을 변별하며, 혐의를 분별하고, 시비를 판명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유예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결정하게 하며, 좋은 사람은 친애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게 하며 현능한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못난 사람을 천대하게 하며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이름을 보존하고 이미 끊어져버린 세대를 계승시키며 헐어진 것을 보충하고 폐기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왕도의 중요한 일입니다. …… 《춘추》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수습하여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놓는 데는 《춘추》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 그런 까닭에 나라를 가진 자는 반드시 《춘추》를 알아야 합니다.(子曰: 我欲載之空言, 不如見之於行事之深切著明也. 夫春秋, 上明三王之道, 下辨人事之紀, 別嫌疑, 明是非, 定猶豫, 善善惡惡, 賢賢賤不肖, 存亡國, 繼絕世, 補敝起廢, 王道之大者也…… 春秋以道義. 撥亂世反之正, 莫近於春秋. …… 故有國者不可以不知春秋.)<sup>29)</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실의 의의를 찾아가는 것, 위정자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옳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과거(舊事)를 통해 현재(新事)를 비판하고 반추하는 하는 것이 포편의 역할이며 환담의 《新論》은 《춘추》의 역사인식을 계승하여 당면한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서명에 ‘新’자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新語》, 《新序》, 《新論》은 각각 그 내용과 주지를 전달하는 서술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육가는 진이 천하를 잃게 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新語》를 지었고<sup>30)</sup>, 유향은 고대로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술한 사람들의 일화와 고사를 통해 외척과 환관의 전횡으로 점철된 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新序》와 《新苑》을 지었으며 환담은 《新論》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철학적 담론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풀어내었던 것이

29) 司馬遷, 裴駟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史記·自序》, 中華書局, 1999, 3297-3298쪽.

30) 이에 대해서는 《史記》와 《漢書》에 동일한 기록이 나타난다. 유방이 부끄러워하며 진이 천하를 잃게 된 까닭, 자신이 천하를 얻게 된 까닭, 그리고 예로부터의 국가적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글을 한 번 써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육가는 국가 존망의 증험에 대하여 거칠게 서술하여 모두 12편을 썼다. 매 1편씩 상주할 때마다 고조가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좌우 신하들은 만세를 불렀는데 그 책 이름을 《新語》라 부른다고 하였다.

다. 결국 유향은 역사(舊事)를 통해 현재(新事)를 개선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新苑'이라 불렀던 것이며, 《說苑雜事》라는 저본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긴 하였지만 수집한 여러 자료를 모아 분류하고 일정한 기준에 맞춰 순서를 세운 후 새롭게 엮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劉向所序說苑"의 의미를 단순한 '編次'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원형 자료 수록 방식, 《新序》와의 중복

앞서 서술하였듯이 《說苑》의 자료는 시대로 구분하면 西漢 이전의 《說苑雜事》와 漢代의 '新事'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敍錄〉에서 유향이 수집한 각종의 자료들이 더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먼저 《新序》로 엮고, 《新序》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增削이 이루어졌다면 문헌학의 각도로 볼 때 원형 자료가 지닌 속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說苑》의 구성 자체가 유향의 개성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니 문학적 의의가 자못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說苑》의 허구성을 높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고, 원형 자료에 대한 가공의 유형을 나누며 유향이 스스로의 주제의식에 맞게 기존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개작하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新序》와 《說苑》에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존재하며, 원형 자료와 줄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문헌은 무엇이기에 《新序》와 중복되는 것들을 없앴다고 하였는가?

유향은 《管子》〈敍錄〉에서 「중복되는 484편을 없애 86편으로 정리하였다.(除復重四百八十四篇, 定著八十六篇)」<sup>31)</sup>고 하였으며, 《戰國策》〈敍錄〉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없애 33편을 완성했다.(除復重得三十三篇)」<sup>32)</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향은 교감과정에서 중복되는 문건을 삭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문헌이란 문자와 내용상 완전히 같은 것, 그리고 문자는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것을 중복되는 것이라 본다. 다음의 작품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31) 姚振宗 輯錄, 鄧駿捷 校補 《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上海古籍出版社, 2007, 43쪽.

32) 姚振宗 輯錄, 鄧駿捷 校補 《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28쪽.

楚 共王이 병이 들자 尹尹을 불러 이렇게 부탁하였다. “常侍인 莞蘇라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나를 도로써 증간하고 의로써 바르게 고쳐주었소.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혹시나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늘 불안했소. 그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소.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것이 많소. 그 공이 적지 않으니 반드시 후한 벼슬로 보답하길 바라오. 다음으로 申侯伯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내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놓아 주었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실컷 해보도록 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있으면 나보다 먼저 먹어보고 알려 주었소. 그와 함께 더불어 즐기고 놀았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으면 문득 쓸쓸한 기분까지 들었소. 그러나 나는 끝내 얻은 것이 없었소. 그의 허물이 적지 않으니 반드시 견책하길 바라오.” / 영운은 이 부탁에 동의하였다. 이튿날 임금은 흥서 하였다. 이에 영운은 관소를 상경으로 올리고, 신후백은 국경 밖으로 내쫓았다. / 증자가 “새는 죽음에 이르러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 그 말이 선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본성으로 되돌아감을 말한 것으로 공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뒤를 이을 사람을 열어 주고 다음 세대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오히려 세상을 마치도록 깨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楚共王有疾, 召尹尹曰: “常侍莞蘇與我處, 常忠我以道, 正我以義, 吾與處不安也, 不見不思也. 雖然, 吾有得也, 其功不細, 必厚爵之. 申侯伯與處, 常縱恣吾, 吾所樂者, 勸吾爲之; 吾所好者, 先吾服之. 吾與處歡樂之, 不見戚戚. 雖然, 吾終無得也, 其過不細, 必前遣之.” 尹尹曰: “諾.” 明日, 王薨. 尹尹即拜莞蘇爲上卿, 而逐申侯伯出之境. 曾子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言反其本性, 共王之謂也.” 孔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於以開後嗣, 覺來世, 猶愈沒世不寤者也.)<sup>33)</sup>

楚 文王이 병이 나자 측근의 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 / 이 말을 들은 대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문왕은 箚饒에게는 대부의 벼슬을 내려 주고 申侯伯에게는 선물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였다. 신후백이 장차 정나라로 가겠다고 하자 왕은 이렇게 경계해 주었다. (“그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오. 사람됨이 어질지 못하면서 남의 정권을 넘보기도 하니 노, 위, 송, 정으로는 가지 마시오!”) 신후백은 이를 듣지 않고 정나라로 가서 3년 만에 정나라의 정권을 손에 쥐었고, 그로부터 다섯 달 만에 정나라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楚文王有疾, 告大夫曰: “箚饒犯我以義, 違我以禮, 與處不安, 不見不思, 然吾有得焉, 必以吾時爵之; 申侯伯, 吾所欲者, 勸我爲之; 吾所樂者, 先我行之. 與處, 則安, 不見, 則思, 然吾有喪焉, 必以吾時遣之.” 大夫許諾, 乃爵箚饒以大夫, 贈申侯伯而行之. 申侯伯將之鄭, 王曰: “必戒之矣, 而爲人也不仁, 而欲得人之政, 毋以之魯, 衛, 宋, 鄭.” 不

33) 石光瑛《新序校釋·雜事一》, 中華書局, 2009, 52-59쪽.

聽，遂之鄭，三年而得鄭國之政，五月而鄭人殺之。）」<sup>34)</sup>

위의 이야기는 《呂氏春秋·長見》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어서 《新序》와 《說苑》에 모두 수록되었다. 《說苑》 인용문의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하게 전개된다. 줄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인공의 이름이 바뀌는데 《新序》의 주인공은 共王(23대 군주)이고, 《說苑》은 文王(18대 군주)이다. 그런데 《呂氏春秋》에 나온 신하 菟嗇, 《說苑》에 나온 箴箴 등은 모두 문왕 때의 신하들이다. 또한, 《左傳》 僖公 7년의 기록에도 신후백이 문왕 사후에 정나라로 도망갔다<sup>35)</sup>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新序》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단순한 오기인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뒤에서 논의해보겠다.

두 번째로 두 책의 편명이 의미하는 주제가 다르다. 초 문왕은 신후백이 어진 이를 질투하는 성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오랫동안 그를 총애하였다.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멀리한 관요와 자신의 비위만 맞춰온 신후백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까지는 비슷하게 전개된다. 그런데 각각 수록된 편의 제목이 바로 유향이 표현하려는 주제임을 고려할 때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바뀌게 된다. 즉 《新序》에는 〈雜事〉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 전개 구조 상 유향이 주장하는 비는 증거와 공자가 한 말로 드러나게 되며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인 성격의 주제를 띤다. 이에 반해 《說苑》에서는 〈君道〉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임금의 도는 청정무위해야 하며, 박애에 힘써야 하고, 어진 이를 모시기에 바빠야 합니다. 또 이목을 크게 열어 만방을 살피야 하며, 유속에 빠져들어서도 안 되며, 좌우 측근에 얽매어서도 안 됩니다. 성과와 실적을 자주 살피고 헤아려 공정하게 신하를 대해야 합니다.」<sup>36)</sup>라는

34) 向宗魯《說苑校證·君道》，中華書局，1987，25-26쪽.

35) 杜預 集解《春秋經傳集解》：「夏，鄭殺申侯以說於齊，且用陳轅濤塗之譜也，初，申侯，申出也，有寵於楚文王。文王將死，與之璧，使行，曰：『唯我知女，女專利而不厭，予取予求，不女疵瑕也。後之人將求多於女，女必不免。我死，女必速行。』」（上海古籍出版社，1988），261쪽.

36) 向宗魯《說苑校證》：「人君之道，清淨無爲，務在博愛，趨在任賢，廣開耳目，以察萬

‘人君之道’에 대한 설명에 딱 들어맞은 문왕의 행위-신하의 옳고 그른 행동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가 중점이 되며, 이 부분이 바로 주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왕이 신하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첨가함으로써 ‘君道’라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볼 때 유향은 비슷한 줄거리를 지니되 인물이나 글자의 기록이 다른 것을 중복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여러 판본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생긴 異文 중 자신이 설정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義理’는 취사의 기준일 뿐 역사에 들어맞아야 하는 진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新序》에서는 《左傳》의 기록과 달리 공왕이 주인공이고, 전래되는 과정에서 생긴 다른 판본이 남게 된 것이다.

또한, 유향이 《說苑》을 편집할 때 되도록 원형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려 했고 뚜렷한 刪改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출토문헌으로 증명된다. 하나는 河北省 定縣 八角廊 40號 西漢代의 墓에서 출토된 《儒家者言》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sup>37)</sup> 《儒家者言》의 내용이 《說苑》과 《新序》에 상당부분 그대로 발견된다. 또 하나는 앞 절에서 언급한 安徽省 阜陽縣 汝陰侯의 墓에서 출토된 說類 竹讀이다. 잔존하는 55개의 《說苑雜事》木牘 중 32개를 《說苑》에서 찾을 수 있다 하였는데 대조해보면 거의 수정 없이 《說苑》에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선진시기의 본래 문헌의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두 번째는 유향이 서로 다른 판본의 문헌을 의식적으로 보존하려고 했다는 기록이다. 만약 유향이 刪定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면 상기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제재에 서로 다른 시대와 서른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가 없다. 嚴可均 또한 《鐵橋漫稿》에서 「유향의 類書는 《左傳》이나 제자서와 비교할 때 시대적인 모순이 있고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설이 병존한다. 《韓非子》 역시 이러하다. 보고 들은 바의 異本을 그대로 전한 것이니 李

方, 不固溺於流俗, 不拘系於左右, 廓然遠見, 踔然獨立, 屢省考績, 以臨臣下.」(中華書局, 1987), 1-2쪽.

37) 何直剛〈儒家者言略說〉: 《文物》1981, 제8기.

斯의 법과 같이 흑백을 가려 하나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sup>38)</sup>라고 하였다. 《晏子》〈敘錄〉에서도 「또 중복되는 것이 있었는데 문사가 사뭇 달라 감히 유실할 수가 없어 다시 한 편으로 열거하였다.»<sup>39)</sup>고 한 것으로 보아 수집한 자료들의 본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려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원형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說苑》과 《新序》 중 완전히 같은 기록의 이야기는 1편 밖에 없으며, 서로 다른 판본의 異文을 다른 이야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줄거리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은 직접적인 평론의 삽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원형 자료에 대한 수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說苑》의 이야기 구성은 《莊子》와 《韓非子》의 ‘儲事達意’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呂氏春秋》, 《淮南子》, 《韓詩外傳》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이한 부분이라면 《說苑》은 매 장마다 제목이 정해져 있고, 시작 부분에 이 제목과 연관된 主旨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韓詩外傳》과 같이 자신의 평론이 삽입된 것이 많다. 이는 〈敘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슷한 유형을 새로운 제목에 따라 편성하는(以類相從, 一一條別篇目)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들을 유형이 직접 구성하고, 설계했다는 증거이다. 비록 〈君道〉편은 주지 설명 부분이 없지만 이는 왕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가르치는 듯 한 느낌을 줄 수 없었기[황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때문에 이야기를 통한 간접 화법의 형식을 띤 것뿐이고, 매 편의 이야기가 모두 유형이 맞닥뜨린 시대적 불안과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각고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전 편을 관통하는 유형의 사상과 관점은 각 편의 題目과 主旨, 그 주지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 이야기에 삽입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荊蒯芮는 절의를 지켜 의롭게 죽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부는 죽을 일까지는 아니었으니 마치 음식을 하다가 독약을 만난 것과 같다. 시에는 이렇게 노

38) 《鐵橋漫稿》卷8〈書說苑後〉: 「向所類書, 與左傳及諸子, 間惑時代抵牾, 或一事而兩說三說兼存, 韓非子亦如此. 良由所見異辭, 所聞異辭, 所傳聞異辭, 不必同李斯之法, 別黑白而定一尊.」(《續修四庫全書》, 第1328冊, 上海古籍出版社, 1995), 47쪽.

39) 姚振宗 輯錄, 鄧駿捷 校補 《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又有復重, 文辭頗異, 不敢遺失, 復列以爲一篇.」(上海古籍出版社, 2007), 34쪽.



대하였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힘써 오로지 한 분만을 섬기었네.”(荊蒯芮可謂守節死義矣. 僕夫則無爲死也, 猶飲食而遇毒也. 詩曰: 夙夜匪懈, 以事一人. 荊先生之謂也.<sup>40)</sup>

荊蒯臚는 절조를 지켜 의를 위해 죽었다고 할 만하다. 죽음이란 사람에게 있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마부의 죽음은 비록 의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역시 지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힘써 오로지 한 분만을 섬기었네.”라고 한 것은 荊蒯臚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또 맹자에 “용사는 언제라도 의를 위해서라면 그 목을 날릴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마부를 두고 이른 말이다.(荊蒯臚可謂守節死義矣; 死者人之所難也, 僕夫之死也, 雖未能合義, 然亦有志之意矣. 詩云: 夙夜匪懈, 以事一人, 荊生之謂也. 孟子曰: 勇士不忘喪其元, 僕夫之謂也.)<sup>41)</sup>

상기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崔杼가 莊公을 시해했을 때 장공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荊蒯芮(荊蒯臚)와 그 마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詩外傳》에서는 마부의 죽음은 과하다고 평가했으나 《說苑》에서는 지조 있는 행위라고 다르게 평가했다. 한 초기부터 사대부의 절개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韓詩外傳》에서 두드러지고 유향이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절조를 지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달랐다. 일반적으로 절조는 사대부들이 갖는 덕목이라 생각했지만 《說苑》에서 유향은 절조를 지키는 대상을 평범한 마부에게까지 확장시켰다. 이는 임금의 무능력과 신하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줄거리가 바뀌거나 이야기의 큰 틀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평론이 삽입됨으로써 이야기가 내포하는 범위와 주제가 변화되었다. 이는 유향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가공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義理’에 의해 채택된 원형의 자료는 최대한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되, 일단 취사선택한 이후에는 편목과 주지에 맞게 평론이 삽입되거나 이야기의 중점을 자신이 생각한 바에 맞게 편성하였다. 또한 여러 이야기를 합치거나 글자를 수정하는 등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增削이 이루어졌다. 그러하기에 유향의 사상이나

40) 韓嬰撰. 許維通校釋《韓詩外傳集釋》卷八 第四章, 中華書局, 1980, 274-275쪽.

41) 向宗魯《說苑校證·立節》, 中華書局, 1987, 90쪽.

관점이 《說苑》의 전편에 관통할 수 있었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들의 순서가 정해져 유향의 개성이 담겼으며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도 반영하였기에 종합적인 편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 IV. 《說苑》의 소설적 요소와 문학적 가능성

《說苑》에는 역사인물 고사가 많이 존재한다.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고대 소설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았다. 소설이라는 명칭은 《漢書·藝文志》에도 등장하는데 현대의 소설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일부 학자들이 《說苑》을 현대 소설이라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설적 요소는 어떤 것인지, 《漢書·藝文志》에 나타난 소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書名을 살펴보자. 유향은 '新苑'이라 불렀지만 반고는 '說苑'이라 표기했다. 당시 '說'은 어떠한 문체에 명명되었는가? 선진양한시기에는 경학을 해석하는 문체로 故, 訓, 傳, 說, 記, 章句 등이 있었다. 하지만 서한 이전에는 경전의 해설서에 '說'을 붙이는 경우는 적었다. 주로 제자서류에 '說'이라는 편명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經書를 해석한 문장은 아닐 것이다. 제자서 중에는 《韓非子》의 〈儲說〉과 〈說林〉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모두 이야기들의 모음편이다. 유향의 저작 중에 《世說》(亡失)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렇다면 '說'은 이야기라는 문헌의 유형을 나타내고, '苑'은 문헌의 모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說苑》과 《百家》는 '義理'에 의해 나누어졌다. '義理'에 맞는 것은 《說苑》에 수록되었고, 천박하여 義理에 맞지 않는 것이 《百家》로 편입되었다. 《漢書·藝文志》의 '小說家類' 1380편 역시 '說'이라는 문체의 특징을 지닌다면 천박하여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小'이고, 說과 小說의 차이는 '義理'에 있게 된다. 즉 유향은 문체의 형식에 따라 說과 小說로 나눈 것이 아니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소설이라고 부른 것과 《說苑》은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說苑》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漢書·藝文志》에 소개된 소설[불완전한 일문의 형태이므로]의 면모를 고찰해볼 수 있으며 반대로 《說苑》에 담긴 소설적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동한 초기 환담은 《新論》에서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유향의 내세운 기준인 ‘義理’와 비교해보자.

소설가와 같은 부류는 세상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모아 비근한 예를 들어 짤막한 글을 지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과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 참고할 만한 말들이 있었다. (若其小說家, 合叢殘小語, 近取譬喻, 以作短書, 治身理家, 有可觀之辭.)<sup>42)</sup>

먼저, 소설은 짤막한 글이라 하였다. 유향은 ‘義理’에 부합 여부만 살폈지만 환담은 더 나아가 소설의 형태를 규정했다. 小說의 ‘小’는 ‘小語’, 즉 짧은 글이라는 뜻이다. 환담이 언급한 ‘叢殘小語’는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의 성어와 비슷한 이러한 유형들은 격언식의 구절을 통해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비유와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글자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袁行霈는 이러한 漢代 소설의 형태를 簡書의 길이와도 연관시켰다. 經書에 기록되지 못하는 짧은 형태였기 때문에 소설이라 명명하였다고 보았다.<sup>43)</sup> 王充의 《論衡》에도 2尺 4寸의 길이로 된 성인의 훌륭한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다. 大道가 아닌 小道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리 능통한다 해도 유가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sup>44)</sup> 이는 천박하여 ‘義理’에 맞지 않아 《百家》에 편입시켰다는 〈敘錄〉의 구절과도 상응한다. 하지만 환담이 말한 소설은 유향이 말한 ‘不中義理’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 짧은 글[小語], 簡書의 짧은 길이[短書], 내포하는 주제[小道, 不中義理]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說苑》에는 〈談叢〉이라는 장이 있는데 짤막한 격언과 해어로 구성되어 있다. 환담이 제기한 ‘合叢殘小語’의 특징과 부합한다. 환담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소설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이 유향이 보기에는 ‘義理’에 맞았기 때문에 《說苑》에 수록한 것이다.

둘째, ‘자신과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 참고할 만한’이라는 구절로 소설의 효용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짧은 구절을 비유하여 자신이나 가정에 참고할 만한[小道] 내용을 전달했고, 《說苑》은 위정자에게 참고할 만한[義理]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42) 《文選》卷三十一, 江淹〈擬李都尉陵從軍〉李善注.

43) 袁行霈 著, 김혜명 역 《중국문학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452쪽.

44) 王充著, 黃暉撰 《論衡校釋·謝短》: 「二尺四寸, 聖人文語 ……比於小道, 其能知非儒者之貴也.」(中華書局, 1990), 557-558쪽.

즉, 유향이 말한 ‘義理’는 가정이나 자신의 수신을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것이 아니라 漢 成帝에게 읽힐 정치적인 주제[大道]였다.

이처럼 고대에 소설이라고 불렀던 작품들은 현대의 개념 범주에 놓고 살펴보면 소설이 아닌 경우가 많다. 현대의 소설은 서사성을 지닌 문학 장르로써 기본적으로 인물, 스토리, 배경 등 몇 가지 필수요소를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환담이 짧은 글이라고 본 소설보다는 역사고사를 제재로 쓴 《說苑》이 현대적 의미의 소설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게 된다. 袁行霈 또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한 유향의 《說苑》과 《新序》의 필법은 정사 중의 전기와 유사하고 서사 또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상상과 허구 성분이 비교적 크기에 자못 소설적 의미가 있어 후세의 소설, 특히 역사에서 제재를 취한 소설에 모범을 제공하였다.<sup>45)</sup>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상과 허구 성분이다.<sup>46)</sup> 하지만 이러한 상상과 허구적인 부분은 유향이 창작한 것이라기 보단 민간에서 이야기를 취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說苑》 중에는 허구적인 이야기와 허구적인 대화는 존재하나 허구의 인물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전되는 과정에서의 오기 또는 서로 다른 판본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구두 문학이 문인들의 손을 거쳐 기록화 되면서 생긴 특징이므로 의식적인 서사문학의 특징을 지니지는 않지만 정확한 역사의 기록에서 탈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역사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왜 그러한 지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쑤나라의 趙莊姬는 趙嬰이 망명한 일을 이유로 군주에게 모함하여 말했다. …… 6월에 쑤나라에서는 趙同과 趙括을 토벌하고, 나이 어린 趙武는 조장희를 따라 군주의 궁에서 기르기로 하고 조씨의 영유지를 祈奚에게 주었다. 韓厥이 진의 군

45) 袁行霈 저, 김해명 역 《중국문학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34쪽.

46) 유향의 작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늘어놓고, 엉터리 이야기를 엮다(廣陳虛事, 多構僞辭.)」라고 한 劉知幾의 평가와도 관계가 있다. 劉知幾, 浦起龍釋 《史通通釋·雜說下》, 上海古籍出版社, 2009, 516-517쪽 참조.

주에게 말했다. “成季(趙衰)의 공훈이 있고, 宣孟(趙盾)의 충성이 있었건만 그들의 뒤를 이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도 이렇게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 이에 군주는 조무를 조씨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 영유지를 그에게 돌려줬다.(晉趙莊姬爲趙嬰之亡故, 譜之於晉侯曰. …… 六月, 晉討趙同, 趙括, 武從姬氏畜於公宮, 以其田與祁奚, 韓厥言於晉侯曰, 成季之勳, 宣孟之忠, 而無後, 爲善者其懼矣, ……乃立武而反其田焉.)<sup>47)</sup>

위의 이야기는 戲曲 《趙氏孤兒》의 원형이 되는 역사적 기록이다. 《左傳》에는 아버지를 여윈 조무가 외삼촌을 따라 궁에서 지내고, 조씨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영지를 하사받는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이를 《史記》에서는 기본적으로 따르되, 屠岸高라는 반대파 인물, 조씨 가문을 돕는 公孫杵臼와 呂嬰이 등장하며 그 인과관계를 확실히 했다. 《史記》에서 두드러지는 극적인 요소는 도안고가 조씨의 자손인 조무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영과 한궐 등의 활약 부분이다. 元代 紀君祥은 戲曲 《趙氏孤兒》에서 정영의 신분을 의사로 바꾸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도록 바꾸었고, 정영이 조무를 데리고 도안고에게 투항한다는 가 조무가 성장한 후 사실을 이야기 해 줌으로써 복수를 하도록 하는 등 극적인 요소를 더욱 늘렸다. 《說苑》에도 ‘조씨고아’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sup>48)</sup> 《史記》의 줄거리와 비슷하지만 도안고가 꿈을 꾸고 점을 치는 내용이 자세하고, 자신의 불운한 미래를 예감하는 부분은 《史記》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았으며 각 시기마다 다르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異本이 수집되고, 민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문인에게 채택됨으로써 오히려 소설적 상상력 발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說苑》과 《新序》의 이야기처럼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인공인 共王이 될 수도 있고, 文王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문지기에 대한 평가처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자료를 취사선택할 때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義理’에 맞는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즉 《說苑》은 역사적 사건(진실)이 역사고사(불완전한 진실)로 변모하는 그 시점

47) 杜預 集解《春秋經傳集解》‘成公八年’, 上海古籍出版社, 1988, 695쪽.

48) 向宗魯《說苑校證·復恩》, 中華書局, 1987, 132-133쪽 참조.

에 서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의식적으로 허구를 창작할 의도는 없었다. 당시의 창작 환경 상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역사와 꼭 들어맞을 것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줄거리를 지닌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袁行霈가 말한 바와 같이 역사에서 제재를 취한 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따라서 환담이 '小語'라고 인식한 소설이라는 부류, 격언이나 짧은 이야기보다는 줄거리를 갖추면서도 역사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說苑》의 이야기들이 현대의 관점에서서는 소설적 요소를 더욱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 V. 結語

살펴보았듯이 《說苑》의 서사 자료는 시대적으로 西漢 이전의 《說苑雜事》와 漢代의 '新事'로, 종류로는 황실 소장, 유향 본인 소장, 민간 취합 자료로 나눌 수 있다. 《說苑》은 공자가 쓴 《春秋》의 영향을 받아 褒貶의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유향 스스로 '新苑'이라 명명했으나 《漢書》의 기록 이후 '說苑'이라 바뀌었다. 상기의 자료들은 '義理'에 따라 유가에 속하는 《說苑》과 소설인 《百家》로 나뉘었고, '義理'는 유향의 주관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던 소설의 부류가 《說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소설이라 인식했던 짧은 격언식 문장보다는 줄거리를 갖추고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되 역사적 진실은 아닌 《說苑》의 이야기들이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 소설적 요소를 더욱 많이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說苑》을 漢代 소설로 보기도 하고 후대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다.

《說苑》의 구성은 '以類相從'의 방식을 취했으며, 〈君道〉를 제외한 전편은 예시한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主旨를 통해 설명하여 유향의 사상과 관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출토문헌으로 발견된 황실 소장 《說苑雜事》를 교감하거나 기존의 자료들을 재편성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적인 편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新序》와의 중복 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수집한 각종의 판본을 중복이라 보지 않고 원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주제에 맞게 이야기들의 순서를 정한다거나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다른 평론을 덧붙이는 등 재해석의 과정이 덧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방식을 통해 《說苑》이 완성되고, 수록한 이야기들의 출처 또한 다양하기에 《說苑》이 지닌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說苑》〈敘錄〉을 통해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說苑》의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說苑》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의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의 수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유향의 주제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 【參考文獻】

- 班 固, 《漢書》 中華書局, 1999.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9.  
嚴可均,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中華書局, 1999.  
王利器, 《新語校注》 中華書局, 1997.  
朱謙之校輯, 《新輯本桓譚新論》 中華書局, 2009.  
石光瑛校釋, 陳新整理, 《新序校釋》 中華書局, 2001.  
向宗魯校證, 《說苑校證》 中華書局, 2009.  
謝明仁, 《劉向說苑研究》 蘭州大學出版社, 2000.  
徐興無, 《劉向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5.  
徐建委, 《說苑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1.  
王啓敏, 《劉向新序說苑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11.  
姚振宗 輯錄, 鄧駿捷 校補, 《七略別錄佚文七略佚文》 上海古籍出版社, 2007.  
徐復觀, 《兩漢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姚 娟, 〈劉向撰說苑敘錄解讀〉:《阜陽師範學院學報》2009 2期.  
袁行霈 著, 김해명 譯 《中國文學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임동석, 《說苑譯註》 동문선, 1997.  
이장휘, 〈說苑 문론 역주〉:《중국학》 제34집, 2012.

### 【中文提要】

《說苑》是一部收集先秦以來至漢初的歷史故事集。其中以記述諸子言行爲主，不少篇章中有關於治國安民，家國興亡的哲理格言，用歷史故事來表達自己的政治思想和觀點。敘錄是劉向《別錄》的遺文，劉向受命參與校理宮廷藏書，校完書後寫一篇簡明的內容提要。主要介紹書籍概貌，書目篇名，校勘經過，著者生平思想，書名含義，著書原委，書的性質，評論思想，史實，是非，剖析學術源流和書的價值。而其文句殘缺，存在歧義，因此，正確解釋敘錄的內容，就是研究《說苑》的重要門徑。

據敘錄理解，可知《說苑》的材料由《說苑雜事》，劉向藏書，民間書。《說苑雜事》是先秦古書。這種材料經過了編輯整理，條別篇目，以類相從的辦法。與《新序》重復者，淺薄不中義理者被去除，重新編輯爲《百家》。卽中義理是取舍材料的標準。其目的爲給漢成帝閱讀。劉向在選擇材料時盡量保存了原始面貌，吸取了傳抄過程中產生的異文，不計故事本身的是否事實。所以可看出不同版本的故事，此影響了小說的敘事。選擇材料之後，根據表達的需要，添加評論等的辦法，進行了一定的加工潤色，《說苑》全篇貫通了劉向的思想。

### 【主題語】

劉向，說苑，新序，說苑敘錄，說苑雜事

투고일: 2014. 4. 15 / 심사일: 2014. 4. 20~5. 5 / 게재확정일: 2014. 5. 10